
2020년 제5호 방송심의보고서

2019. 1. 24. ~ 1. 30.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		
방송일자	2020. 1. 23.	시청률	0.011

【총 평】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 제17회는 운전 중 운전기사의 폭행 실태를 밀착 취재한 '시민의 발이 위협 받고 있다'를 방송해 교통안전의 경종을 울려주는 역할을 했다. 2016년부터 2년간 승객으로 인한 운전자 폭행 피해자가 85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시민의 발이 위협 받고 있다. 하루평균 운전자 폭행 발생 건수가 8건, 구속된 인원은 단 0.7%에 그친다는 등 구체적 자료 제시가 메시지 전달력을 제고했다.

특히 운전자에 대한 승객의 폭행은 운전자는 물론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을 강조해 예방 캠페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기획이 돋보였다.

버스 기사와 택시 기사로 구분을 지어 각각의 특수한 상황별로 처해 진 고충을 살펴본 대목도 좋았고 후반부에는 기사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나 위험에 빠진 승객을 구하기 위한 필수 교육 등도 함께 다루어 의미가 있었다.

【구성 및 내용】

운전하는 사람들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안전위협은 도로위 모두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으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시민의 발이 위협 받고 있다'에서는 폭행 사건의 피해 상황을 먼저 다루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폭력을 부르는 원인으로 시민들의 안전의식 부재와 가벼운 처벌이 지적했고, 대처 방안으로 운전자 보호격벽을 설치, 처벌강화 등을 제시한 점이 탁월했다. 또, 서울시가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해준다는 정책알림이 역할도 자연스러웠다.

운전자가 위급한 상황에 놓인 승객을 구조한 사례가 소개되고 돌발상황에 대비해 심폐소생술을 익히는 모습을 보여준 점이 인상적이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사들의 노고를 다루면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성숙한 시민문화를 강조했으며, '운전기사 폭행은 테러와 같다'는 문장을 인용해서 오늘의 내용을 한 마디로 압축해 놓은 듯이 강렬하게 마무리를 해주었다.

■ 버스 운전자 폭행 사건

응급처치로 승객을 구한 버스 기사의 사례와 심야에 승객에게 폭행을 당한 버스 기사의 사례를 소개하고 버스 내 밀폐형 보호벽 설치에 대한 방안을 소개했다.

■ 택시 운전자 폭행 사건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 기사의 사례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여성 기사들의 고충을 소개하고 택시 내 보호격벽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 운수종사자 법정 교육

위기에 처한 승객을 구하기 위한 응급 처치 등의 법정 교육 현장을 취재하고 저상버스 운행시 유의사항 등을 다루었다.

프로그램	KTV 아트시네마		
방송일자	2020. 1. 25.	시청률	0.049

【총 평】

<KTV 아트 시네마>는 'Today 다양성 영화 소개(Today 다·영·소)', '시네마 토크(Talk)', '캐릭터 탐구', '영화읽기' 총 4개의 코너로 기획 구성하였다. 북에서 온 수향의 학교생활을 다룬 '전학생', 시대의 아픔을 온 몸으로 표출해내는 '바람의 춤꾼', 동물보호의 의미를 던진 '잡식가족의 딜레마', 잊고 있던 첫사랑의 추억을 소환하는 '영희씨' 등 메시지가 담긴 작품이어서 여운을 남겼다.

특히, 대중이 관심을 갖지 않는 독립예술영화와 독립 다큐멘터리의 작품 세계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KTV 채널 이미지를 고취 시키고 있다. 또한 차세대 영화인들을 격려함으로써 한국 영화 향후 100년을 이끄는 데 이바지 하고 있다는 높은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구성 및 내용】

■ 'Today 다양성 영화 소개 '전학생'

북에서 온 소녀가 새 학교로 등교하기 전에 느끼는 불안과 기대, 첫 인사를 어떻게 전할까 하는 고민을 섬세하게 담아내 영화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다. 특히, 첫 등교날 담임 선생님의 북에서 온 친구라는 무심하고 부주의한 소개가 주인공이 그동안 해왔던 다양한 고민과 설레임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냉소를 보내는 반 친구들의 표정을 보며 많은 생각이 교차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효과가 있었다.

■ 씨네마톡(TALK) '바람의 춤꾼' 최상진 영화감독

다큐멘터리 영화 '바람의 춤꾼'을 연출한 최상진 영화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거리의 춤꾼 이삼헌의 인생과 춤을 다룬 이유 등 작품 뒷이야기를 담았다. 영화제목을 '바람의 춤꾼'으로 정한 이유는 처음 이삼헌 춤꾼이 당시 시대의 현실에 의해 세상의 온갖 바닥을 다니면서 자유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는 것을 보며, 동시에 정치권력에 더 이상 희생당하는 사람이 나오질 않길 바라면서 자연의 바람, 희망의 바람의 중의적인 의미를 담았다.

■ 캐릭터 탐구 '잡식 가족의 딜레마'

돈가스 마니아에서 채식주의자로 변신한 주부 윤이 구제역을 만나면서 겪게 된 고민, 윤의 남편인 수의사 영준의 식단과의 갈등, 윤과 영준의 아들 도영의 돼지와 친구 맺기와 현실, 어미 돼지 등 한 가족의 먹거리 딜레마를 담은 작품이다.

■ 영화 읽기 '영희씨'

50대 중년 여성에게 첫 사랑 남자의 아들이 찾아옴으로 인해 벌어진 이야기로 자신의 첫사랑에 대한 추억과 젊음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 준 영화이다. 감독이 관객에게 전해주는 영화 감상 포인트는 새 옷, 기차를 향해 달려가는 설렘 상황, 잊고 있던 청춘을 떠올리는 선물 같은 하루, 담장에 드러난 발레 엔딩신이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1. 26.	시청률	0.000

【총 평】

<PD리포트 이슈본> 제284회는 설 기획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수범사례 4가지를 묶은 '새해, 나눔을 생각하다'편을 방송해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방송에서는 '나눔'과 '봉사'를 묵묵히 실천하는 숨은 영웅들을 발굴해 소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밝은 면을 조명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부분이 돋보였다.

특히, 탐사보도 기법으로 어두운 면을 고발하고 솔루션을 찾는 종전의 포맷과 달리 희망을 주는 사회의 밝은 주인공을 조명한 구성이 KTV 정체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를 이끌었다. 또, 우리사회를 밝혀주는 미담의 주인공을 사례별로 탐방해 구성한 점이 흡인력과 주목도를 이끄는 요소로 작용했다.

【구성 및 내용】

어린이들에게 인형을 만들어주는 인형제작자, 하루 119원씩 적립해 이웃을 돕는 소방대원들의 기적 프로젝트, 노인들이 모은 폐박스를 비싸게 산 뒤 수익금으로 다시 노인들을 돕는 사회적 기업자, 봉사명문가 3대의 미담 등을 발굴해 부각시킨 면이 눈에 띄었다.

■ 인형으로 동심을 나누다, 나만의 인형 기부 프로젝트

암투병을 하다 먼저 떠난 아내의 영향으로 아픈 아이들의 특별한 사연이 담긴 인형을 직접 제작해 희망과 용기를 담아 전하는 인형제작자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 소개했다.

어린이들이 원하는 인형을 그대로 만들어주는 인형제작자의 미담사례는 드라마 형식의 구성으로 이해도와 흡인력을 높인 점이 강점이다.

■ 인천강화소방서, 119원으로 기적을 나누다

인천소방본부 소방대원들이 재난 현장에서 마주친 안타까운 사연의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하루 119원씩 30일간 3750원을 적립해 1700명이 2400만원을 모아 어려운 이웃돕기를 실천하는 '기적의 프로젝트' 사례가 감동적으로 소개됐다. '119원의 기적' 프로젝트를 시작한 인천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의 마음이 감동으로 다가왔다.

■ 종이로 이웃사랑을 나누다, 어르신들의 폐박스 수거 사업에 대한 나눔실천

어르신들이 모아온 폐박스에 노동의 가치를 부여해 품삯을 지급하는 사회적 기업 이야기를 소개했다.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회사 이야기를 전하고, 구입한 폐지를 활용해 업사이클 아트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일련의 과정들이 이목을 끌었다.

■ '봉사명문가 3대' 선정,

딸과 손자까지 3대가 봉사를 실천해 '봉사명문가 3대'로 선정된 사례를 소개했다. "직업이 봉사"이고 "나눔이 기쁨"이라는 인터뷰가 감동적이었다. 손길이 필요한 어린이들, 병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분들의 말동무가 되어주는 일, 지역사회 행사 등에 대한 봉사 등 돌봄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고 있다.

프로그램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1. 25.	시청률	0.060

【총 평】

<KTV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제17회 '시골에 간 지휘자'는 지휘를 전공한 주인공이 고향인 전남 무안으로 내려가서 농사를 짓게 된 사연과 귀농 6년 차 이야기를 담았다.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쳤던 주인공이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귀국해서 아버지와 2년 반 동안 지내면서 농사하는 분들을 만나 도움을 받아 농사를 본격적으로 진행, 결국 농부가 되었다. 귀농 후 재능기부를 하게 된 이유와 귀농 정착 이야기를 촌촌하고 담담하게 잘 엮어냈다.

주인공의 향후 목표는 우선 중창단의 음악적 수준을 좀 더 높이는 것, 두 번째로 농사에 있어서는 고구마 농사의 규모를 넓히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좀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구성 및 내용】

음악을 전공한 대학교수가 고구마 농부로 변신이라는 소재 자체가 관심을 끌었고,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와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같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음악을 통한 교감과 화합이라는 키워드로 주인공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주민들과 함께 하는 중창단 활동과 고구마 농사를 통해 잘 그려냈다.

농촌 마을로 귀농한지 6년차가 되어가는 주인공이 귀농한 동기, 귀농 이후의 주력 농사 작물과 새롭게 시도하는 신규작물 등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 아내는 장터에 나가 생선가게 일을 하고 있지만, 향후 남편의 농사에 합류를 할 예정이다.

주인공에게 농사는 5년째이지만 아직 배우고 있고 주변 농사 선배들은 20년이 넘어도 아직 배워야 한다고 한다. 농사의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있어 주변 이웃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풋마늘을 직접 수확하고 지게차를 직접 운전하는 모습에서 주인공이 농사에 쏟고 있는 열정을 잘 느낄 수 있었다.

농부 이전의 삶이었던 음악으로 마을의 활기를 살리면서 마을주민들과 함께 중창단을 구성하여 농사와 함께 노래와 음악을 벗삼아 서로 소통하며 음악 봉사를 진행하는 삶을 전달했다. 특히, 중창단이 매개체가 돼서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봉사와 나눔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적인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였다. 공동작업 현장과 중창단 활동에서 볼 수 있었던 마을 주민들의 밝은 표정은 그들이 지향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상징적으로 대변했다.

【참고사항】

01:33 소재목 '시골에 간 지휘자'는 잠시 시골에 들린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긴다는 점에서 '시골로 간 지휘자'가 적절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프로그램	KTV 뉴스중심		
방송일자	2020. 1. 28.	시청률	0.033

【총 평】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강력한 선제 대응을 주문한 문 대통령의 동정부터 그 위험성과 행동요령 그리고 예방수칙 등의 리포트를 집중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대응이었다. 또, 신속한 예산 집행, 선제 방역 대처, 전국 발생현황 실시간 브리핑 중계 등으로 국민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전달하였다.

【구성 및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예방 및 역학조사 관련,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집중 보도하였다.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고 궁금해 하는 부분이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하면 안전할 것인가인데 이런 부분을 잘 반영했고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놓치지 않고 전달했다.

■ 문 대통령, 국립중앙의료원 방문…“강력한 선제 조치”

문 대통령의 국립중앙의료원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선제 조치에 대한 내용을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관간의 커뮤니케이션과 병원측의 입장이 강조되어 눈길을 끌었고 철저한 방역 준비 상태를 강조해서 시청자들을 안심시켜 주었다.

■ 홍 부총리 “방역 예산 신속 집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방역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선제방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확대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과거 사례를 참고하여 시나리오별로 분석 및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세기 파견과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차별화된 뉴스였다.

■ 오늘부터 검역 강화…중국 전역 ‘검역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역 대상을 강화하여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검역을 진행한다. 또, 발열 등 증상을 보일 경우 의심환자는 즉시 격리한다.

■ '사람 간 전염' 신종 코로나…위험성과 행동 수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알아야 할 의학적 상식과 사스와 메르스와의 대비를 통해 상대적 위험성을 강조하고 중국 여행 전후 행동요령과 주의사항 그리고 예방수칙까지 다각도로 꼼꼼하게 잘 챙긴 종합 리포트였다.

【참고사항】

04:20 ‘홍 부총리 “방역 예산 신속 집행’ 자막에서 ‘관광·서비스업 등 ~ 철저히 점검·분석하고’에서 ‘관광 □ 서비스업, 점검 □ 분석’으로 표기되었는데 자막시스템에 의한 것인지 등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송일자	2020. 1. 28.	시청률	0.021

【총 평】

최근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12.16 대책 이후 아파트 가격 동향과 전세가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도 잇따르고 있어 팩트체크를 통해 “집값 잡겠다며 다주택자만 늘렸다?” 등의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잘못된 보도내용을 바로잡음으로써 정책신뢰감을 높이고 정책알림이 역할을 제고해 KTV정책성을 높인 점이 긍정적이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규제를 자세히 설명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의 실효성까지 분석해 이해도를 높였다.

프로그램 초반에 잘못 보도된 내용을 문제제기 형식으로 진행자가 짚어가는 모습이 주목도를 높였다. ‘팩트체크 포인트’, ‘오늘의 팩트’ 등을 통해 그 대상과 시사비비를 일목요연하게 자막으로 정리해주고 진행자가 다시 요약해주는 방식이 이해도와 전달력을 높였고 ‘옥신각신하는 댓글’을 ‘한판정리’한 부분도 가독성을 높이고 네티즌 반응을 엿볼 수 있었다.

【구성 및 내용】

<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84회 방송은 “집값 잡겠다며 다주택자만 늘렸다?”편으로, ‘2018년 11월 1일 기준으로 10채 넘는 다주택자가 역대 최대이고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정책이 원인이다?’와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물량 줄고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매물 부족으로 전세 대란이 우려된다?’를 팩트 체크하였다.

특히, “집값 잡겠다며 다주택자만 늘렸다?”는 잘못된 보도내용을 바로잡음으로써 정책신뢰감을 높이고 정책알림이 역할을 제고했다. “오히려 다주택자 비중이 낮아지고 서울 다주택자는 감소했다”는 정보를 전달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내용, 장기임대주택 공급방안, 투기차단 방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 부동산 정책을 상세히 알리는 기회로 활용했다. 또, 2018년 11월 1일 기준, 다주택자 역대 최대치 기록과 관련한 팩트 체크에서는 전체주택 소유자 대비 다주택자 비중이 감소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숫자보다 비중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정부의 규제를 세금관련(보유세 강화, 양도세 중과 배제), 금융규제(주택담보대출 금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 금지, 전세보증 연장 제한·대출 회수)로 구분해 설명해 정보전달 측면에서 매우 유용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제한,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 등을 설명했다.

【참고사항】

01:40 청운대학교 방송영화영상학과 이호은 교수가 자기소개에서 방송영화영상학과라고 말했는데 자막에는 방송영상학과로 표기 오류가 있었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1. 29.	시청률	0.014

【총 평】

다른 뉴스에 비해 중요도와 비중은 떨어질지 몰라도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와 작은 변화들을 포착해 모두의 이야기로 이끌어낸 아이템이 많았는데 이는 바람직한 변화로 국민리포트의 지향점이다. 이번 국민리포트는 분단의 상징인 DMZ를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 전국에서 처음 운행되는 친환경 전기굴절버스, 현대적 맛을 입힌 오래된 공간의 변신, 노년층의 국악동아리 활동, 철거를 앞둔 서울시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에 대한 리포팅이 이뤄졌다. 국민기자들의 남녀노소 다양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구성 및 내용】

■ 분단의 상징 평화로...DMZ 세계유산 등재 본격 추진

DMZ, 즉 비무장지대는 멸종위기 동물의 피난처임과 동시에 전쟁의 상흔과 분단의 흔적도 그대로 남아있어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DMZ가 향후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면 남북의 평화체제 구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 친환경 전기 굴절버스...전국 첫 세종시 운행

전국에서 첫 번째로 세종시에서 운행에 들어간 '친환경전기굴절버스' 리포트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버스의 구조와 편의시설을 들여다봤다는 점에서 특징적이었다. 친환경 전기굴절버스 운행 시 승용차 130여대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수준의 감축 효과가 있다.

■ 추억과 새로움 만남...오래된 공간의 변신

최근 뉴트로 감성과 맞물리면서 서울의 성동구와 마포구에서 빈티지 소품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되찾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목욕탕이 카페로 조성되기도 하는 등 세월의 흔적과 요즘의 맛이 공존하는 공간들이 도시 곳곳에 조성되고 있다.

■ 신명나는 한마당...국악의 맥 잇는다

전통음악 무대에서 공연하는 국악동아리 남녀회원 30명은 국악에 대한 열정으로 국악을 듣고자 하는 관객이 있으면 어디든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연하고 봉사한다.

■ 철거 앞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철거를 앞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에 남겨진 주민들의 삶의 흔적과 기억들을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들여다본 리포트라기보다는 답사기와 같았다.

【참고사항】

00:30 헤드라인 자막 '분단의 상징 평화로...'는 '분단의 상징, 평화로...',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로...'라고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다.

07:50 헤드라인 자막 '추억과 새로움 만남...'은 조사를 추가해 '추억과 새로움의 만남'이라고 했다면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었을 것이다.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0. 1. 29.	시청률	0.019

【총 평】

<톡톡 사이다경제> 제196회는 지난 20일 홍남기 부총리가 밝힌 2020년 대외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맞춰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실천방안과 과제를 짚어보는 내용으로 진행돼 시의성에 맞는 기획이 돋보였다.

신북방정책을 통해 한중러 외에 북방국가와의 경제협력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공고히 해 나갈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돌발 악재와 우리 경제 최소화 방안을 긴급 진단식으로 언급한 부분이 탁월했다.

이와 함께 어려운 경제이슈를 쉽게 설명해 시청자 이해도를 높였다. 통화스와프를 마이너스 통장에 비유한 점을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돌발 악재 등 대외리스크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방역을 위한 개인위생방법을 언급한 센스가 돋보였다.

【구성 및 내용】

‘주요 경제 & 이슈’는 “2020년 대외경제정책 방향, 주요 내용과 과제는?”에 대한 내용을 다룸으로써 신북방정책과 수출, 대외 리스크 등의 궁금한 정보를 세세하게 풀어냈다.

특히, 2020년 한 해의 대외경제 여건과 과제를 두루 조망해 경제를 보는 시야를 넓혀준 구성이 긍정적이었고, 미국-중국 경기 둔화, 북한 문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문제에 이르기까지 대외 여건과 과제가 두루 다뤄졌다.

주요 내용, 평가, 전망, 분야별 검토, 대안 등으로 세밀하게 분석해 정책알림이 역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 구성이 강점이다.

2020 대외경제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신북방정책 역점추진, 수출시장과 경제영토 확장, 해외수주와 외국투자유치, 대외리스크 관리에 대한 분야별 내용과 과제가 상세하게 언급돼 경제정책 홍보는 물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냈다.

정부의 남북경협 확대의지가 이번 신북방정책에도 담겨 있는지도 밀도 있게 살펴 이목을 끌었고 ‘9개 다리 행동계획’에 남북러 3각 협력 공동연구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해 내용을 파악하는데 용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 방안은 질병과 경제 관계를 엮어서 풀어냈다는 점, 질병 확산으로 인한 실물 경제 위축 우려 부분을 바로 잡아준 점, 메르스와 사스 등을 비교해서 설명한 점이 새로웠고,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잘 보여주었다.

똑똑한 정책뉴스는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개편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정보전달력과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개편내용, 신청방법, 신청자격, 대상자 선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노년층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